

이삭과 야곱

서울시만교회 부목사:홍 순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7~12]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20~22]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매사에 덜렁대고 범사에 사고만 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사람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네 가지로도 나누고, 세밀하게 나누면 16가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털팔이 같이 실수 많이 하고 남에게 그렇게 정신없이 사느냐고 핀잔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 안 하십니까? 아니면 꼼꼼하기 이를 데 없고 일을 맡겨 놓으면 절대 빵꾸 안 내고 철저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일 겁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대조적인 인물이죠.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삭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쓰였는지를 잘 몰랐어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려면 그럴듯한 업적이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눈에 이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뭐 했다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통치자였거든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하면 말이 될듯한데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시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굳이 골라 보라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그랄 지방에 거하다가 우물 빼앗긴 이야기고,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도 못한 채 작은 아들에게 속았던 얘기가 전부예요. 그 외에 한 두 개 더 있지만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위대한 조상들의 반열에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어릴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삭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방금 읽었던 앞 부분, 모리야 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때 이삭의 나이는 20살이 안 된 것 같아요. 16~17이라고 봅시다. 우리 고등학생 나이쯤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116~117살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팔팔하고 힘이 넘치는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면 손을 먼저 묶어야 돼요, 발을 먼저 묶어야 돼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삭아, 저기 봐라.” 해서 고개를 돌리면 뒤통수를 딱 때려서 기절을 시켜서 잡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팔팔한 애를 손이고 발이고 간에 못 묶어요. 100살이나 된 아버지가 어떻게 묶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예, 그러세요.” 이라고 순순히 손을 내 밀고 스스로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칩시다. 실제로 이삭이 그렇게 죽었고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로 드리고 왔소.”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들을 죽인 아브라함을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순순히 죽은 아들을 원망하겠어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아버지는 노망이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고 아버지를 말릴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판국에 “예, 아버지 그러세요.” 하고 죽으려고 드러눕는 이게 믿음 좋은 아들이예요? 멍한 아들이예요? 바보 아니예요? 그럴만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장가 갈 때 이야기도 참 재미있어요. 이삭이 장가가려고 애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에 있던 늙은 종이 멀리 가서 자기 부인을 구해 왔어요. 그냥 들에서 목상하고 있다가 오는 부인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뭐 옛날에 아버지가 사람 구해 와서 결혼해라 그러면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조선 시대에는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던 것 아니냐?”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험을 앞세운 거예요. 성경본문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삭 말고 에서 있죠? 에서가 부모님 말 안 듣고 결혼했습니다. 다른 쪽속들 여러 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물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면 부모가 하라고 해서 당연히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을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집의 늙은 종이 구해다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평생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이자고 해도 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예, 착한 사람이예요? 정말 미련공탱이예요? 좋은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 보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부모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예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말도 너무 잘 듣고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랄이라는 외국에 살 때 우물을 세 번이나 빼앗겼어요. 맞붙어 싸워서 자기 것을 지켜야지 내 놓으라고 그러니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요. 이런 이삭을 어떤 사람이나 했더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 이러더라고요. 남의 말이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곳은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 떼를 먹이는데 아주 요긴한,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그런 곳 이잖아요. 그러니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걸 내 놓으라 한다고 순순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남의 얘기니까 싸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물러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몇 천 만원 들여서 멋진 차 한 대 사 뒀어요. 남편이 끌고 나가더니 갑자기 차는 놔두고 빈손으로 왔어요. “여보, 차는 어떡했어?” “깡패들이 텀비는 바람에 그냥 주고 왔어. 내가 살아온 것 잘 했지?” 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보, 잘 했어. 몸이라도 살아왔으니까 다행이야.” 이러실 거예요? 좋습니다!

새로 차를 한 대 또 사 뒀어요. 이 차 끌고 나가더니 또 그냥 왔어요! 세 대를 그렇게 없앴어요. 어떡하실래요? 안 사 주면 돼요? 제가 성경 공부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 번 했더니 어떤 부인이 확끈하게 얘기하대요. “나가 뒤져라!” (나가서 죽어라!) 한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이삭이 우물 3개나 빼앗기고 말없이 물러난 것이 평화를 사랑하고 싸우지 않는 좋은 성품이라고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게 이삭의 삶이죠.

노년에 눈이 어두운데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맛있는 것 해 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속는 순간에 자기를 속인 야곱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의 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시 불러서 축복해서 보냅니다. “형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몸을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해서 떨었다고요? 아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 말은 작은 아이가 장자권을 이어간다는 말인데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잊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별미를 해 온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들이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 했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는 아니에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삭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성품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손해도 많이 봐요. 손해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을 참 귀하게 여기셔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순종보다 더 위대한 업적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내 말이나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열매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 열매 중의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으라 하면 ‘전도를 몇 명이나 했나?’ 아니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 했냐?’ 이것부터 따지는데 진짜 큰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요 6:29).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이걸 원해요? 그건 작은 열매예요. 큰 열매 곁에 붙어있는 작은 열매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서 천국 문지기가 여러분을 붙들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은 제가 열매입니다.” 하고 들이미세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열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삭이 정말 예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업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기를 자처하셨던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고난을 겪고자 하는 그 아들 예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삭의 순종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는 이 이삭에게, 예수님을 닮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되는 거예요. 평온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힘든 고비를 별로 겪지 않아요. 일이 저절로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고 하시는 거죠.

반면에 야곱의 삶은 온통 속이고 속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님과 싸웠어요. 먼저 나가려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았을까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싸운 건데, 졌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팔죽 한 그릇으로 “날 보고 형님해라.” 그래서 에서가 “그래, 너 형님해라.” 팔죽 한 그릇으로 이론상이지만 형님 자리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님의 복을 가로챈 겁니다.

인간적인면만 본다면 야곱은 능력도 있고 수단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이런 욕심이 있어야 뭔가 이룰 것도 이론다고 말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 뭔가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될래? 이삭이 될래? 그러면 야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한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결혼문제만 해도 이삭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반면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7년, 7년, 14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수고해서 얻은 아내예요. 그 바람에 결국은 4명이 됐죠? 그러는 통에 자녀를 열둘을 얻었어요. 자기 할

아버지와 아버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삭의 경우에도 늙어서 쌍둥이 둘을 얻기는 했지만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간 것은 아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이삭도 아들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열두 아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말예요.

이런 야곱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삭하고 비교하면 다른 점이 한 개 있는데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고 그의 평생을 따라 다니면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다는 점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벵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 오셨죠. 그리고 그의 평생을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겠다, 위험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 하고 매달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잘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살만하거나 걱정이 사라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것이 힘든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평온한 삶을 살기보다는 힘든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또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그러시면 우리 인생이 저절로 힘들어집니다.

야곱의 수고가 빛을 발한 것은 외삼촌 집에 갔을 때였죠. 야곱도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지만 외삼촌은 어떤 의미에서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상황 자체가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야곱이 거기서 14년을 지낸 후에 외삼촌이 “이제 샅을 정해라. 보수를 얼마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일정액을 원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머리를 엄청 굴렸다는 뜻이죠.

“삼촌, 얼룩덜룩한 것은 다 빼내 가세요. 그리고 하얀 놈만 제가 칠게요. 그런데 이 하얀 놈 중에서 얼룩덜룩한 놈들이 나면 그것을 내 보수로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뭔가 노리는 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외삼촌이 “오냐, 좋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놈 싹 가려서 사흘 길을 떠웁니다. 쉬이지 않도록!

사흘 길을 떠워서 자기 아들에게 말기고 야곱은 하얀 양과 염소만 칩니다. 그런데 이 하얀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놈들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새끼를 뱄때에 그 앞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꽂아 놓으면 얼룩덜룩한 놈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 짓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랬더니 얼룩덜룩한 놈들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보니 이거 안 되겠어요. “야, 틀을 바꾸자. 지금부터는 얼룩덜룩한 놈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하얀 놈 나오면 너 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하얀 놈만 태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이 온갖 꾀를 가지고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부인과 함께 도망을 치죠. 외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셔서 그 추격에서 벗어납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외삼촌을 벗어나 보니까 앞에는 20년 전의 그 형님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형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형님이 이 한 무리를 치면 반쪽이라도 견져 내자.’ 식구들에게 강을 다 건너게 하고선 압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가족들을 다 견네 놓고 혼자 남았던 이유가 무엇 일까요? ‘기도자인 내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식구들 다 건너보내고 그 어두운 곳에서 어찌면 목 놓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꾸 짐적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짐적거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나, 지금 당신하고 얘기할 마음이 없어요. 제발 좀 놔 주세요.” 그래도 안 놓고 버티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씨름으로 되어있는데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에요. 밤새 앞치락 뒷치락 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밤새 꼬드트리 어쩔 수 없어서 싸움이 벌어진 곳에 밤새도록 싸우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밤중에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 붙어 싸우나요? “야곱아, 내가 여기에 있는데 뭘 그리 두렵게 여기느냐? 나만 믿고 용감하게 가면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 이름이 그게 뭐냐? 이름 바꾸자.” 이래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두려워 하지마라.” 그리고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형님을 만났더니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네요. 문제가 깨끗하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풀렸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서원을 했던 그 곳으로 가야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 가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죽치고 앉아서 오래 살았어요. 밧단아람을 떠날 때 아주 어렸을 거라고 추정되는 딸 디나가 시집을 갈 만 한 나이까지 된 것을 보면, 도중에 10여년 이상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뻔엘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세겜성 근처에서 오래토록 살았어요.

그러다가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성을 약탈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뻔엘로 가지 않고.” 그래서 뻔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이 들고 서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깨끗이 잊어먹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 서원기도 다시 한 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평안히 돌아오는 것, 입을 옷, 먹을 떡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나요? 부인 넷에 아들 열 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쥐서 돌아오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그러고 있었던 말이지요.

더군다나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말해놓고도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누라 기도 덕분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보, 당신 기도 열심히 해. 당신 기도 덕분에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마누라 기도 덕분에 사시는 분하고 야곱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누라 기도 덕분이면 그래도 나아요. 어머니나 할머니 기도 덕분에 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야곱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서운하실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약간 오기는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야곱이 잘 알지를 못하니 야곱의 생애에 이런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것도 엄청난 재산과 자녀를 거느린 채 고향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요셉이 죽어 버린 겁니다. 아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걸로 알았죠.

우리는 알지만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22년이나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그 아들이 천국에 가 있던 게 아니고 애굽에 가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도 그 아들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나요? 이유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의 자녀였거든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더니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 오랍니다.” 야곱이 펄쩍 뛩니다.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보낸다.” 왜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남겼던 단 하나의 아들인데요. 요셉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주원인

은 라헬 때문이에요.

야곱은 한 평생 라헬에 빠져서 라헬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라헬이 일찍 죽었지만 죽고 난 뒤에도 라헬을 못 잊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서운할지 몰라요. 야곱의 생애에 첫 관심은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왜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안 풀리느냐?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가 정말 사랑했던, 이미 죽어 없어진 라헬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향한 그 사랑, 그 시선을, 내게로 돌릴 수 없겠니? 이제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그만 놓지 않을래?’ 이런 말씀으로 베냐민을 내 놓으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놓으라고 하셔도 그걸 빼앗아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못 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결국 베냐민을 놓아야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잘 알아요. 대단한 신앙이죠. 자기가 죽는 걸 각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이 죽을지 모르는 데 내놓는다는 것이죠?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았더니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화려하게 부활해서 돌아온 거예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베냐민도 돌아오죠, 다른 모든 아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을 짓눌렀던 고난이 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고 버티니 그의 생애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놓았더니 모든 문제가 다 풀려 버렸다는 거예요.

좀 더 일찍 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더 일찍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저의 추측입니다만 라헬의 사랑도 오래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라헬의 사랑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왜 이리 고달프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않는 탓이 아닌가? 한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던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했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이삭의 삶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알고 살았던 야곱의 삶은 본인 표현을 빌리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힘써 노력하고 자기 머리,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늘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 놓은 것 있었죠? 오르막 올라갈 때에 모터 없는 자전거는 열심히 밟아야 올라가는데 모터 있는 자전거는 페달 밟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오르막 올라가요. 어려울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 모타가 자전거를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좀 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신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좋아하셨어요. 훗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도 쓰셨고 야곱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기뻐하셨는데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죠.

교회에서도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냐?’ 저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떤 분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능력을 주셨나? 저도 부러울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이삭을 생각하세요.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미련공탱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는 것이 가장 멋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두 사람 다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요긴하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